

“소금 섭취 어찌란 말이나”

전남도, 소금박람회서 “적게 먹으면 심장질환”... 시외버스엔 ‘소금 적게 먹기’ 광고

오라가락 행정 혼란 부추겨

전남도가 국민이 민감해하는 소금(나트륨) 섭취와 관련해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소금을 적게 섭취하면 심장질환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홍보하고 한편에서는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 지 모르겠다며 비판하고 있다.

전남도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금 섭취가 적을 경우 심장질환 질환 등 건강 위험도가 높고, 한국인은 현재 적정 수준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어 섭취량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학술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2면>

자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5 소금박람회’ 전일염 심포지엄에 참석한 미국 고혈압 의학 학자인 마이클 알더만 교수는 “소금 섭취가 적을 경우 오히려 심장질환 질환과 사망률 등 건강 위험도가 증가한다”며 “성인의 소금 하루 적정 섭취량은 7.1~13.9g이며, 한국인은 하루 평균 12~13g을 섭취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소금 섭취를 줄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알더만 교수는 국제 고혈압학회장과 미국 고혈압학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미국 고혈압학회지 편집장을 맡고 있다. 오랜 기간 고혈압 예방을 위해 소금을 하루 5g

정도만 섭취하는 저나트륨 운동을 정책적으로 펼쳐왔으나 미국학술의학원이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프랑스 앙드레 알라에르 교수는 “키토산을 결합시킨 기능성 전일염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며 “실제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체 임상시험에서 전일염을 섭취했을 때 수축기 혈압은 약 13.1mmHg, 확장기 혈압은 11.2mmHg 가량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도는 소금 적게 먹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외버스에 소금 적게 먹기 실천전라매핑광고까지 하고 있다.

전남도는 광고에서 “가정에서 소금을 적게 넣고 급식에서 적게 담고 외식에서 적게 먹자”며 주민들에게 소금 섭취를 줄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민 김수경(46)씨는 “국민이 건강에 민감해하는 소금을 적게 먹이란 말인지 많이 먹이란 말인지 도통 알 수 없다”며 “전남도는 소금을 적게 먹자는 광고를 하지 말든지, 외국 석학들의 소금 섭취 옹호 발언을 홍보하지 말든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전남지역 전일염 생산량은 전국의 87%를 차지한다. 여가 수는 신안과 해남, 영광 등 8개 시·군에서 1277가구. 면적은 3033ha로 국내 염전의 81%를 점유한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카뮈의 체코슬로바키아 이야기

함정임 칼럼



카뮈의 ‘이방인’을 읽다 보면, 인상적인 에피소드 하나를 만나게 된다. 2부 2장에 나오는 ‘체코슬로바키아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는 십여 년 전 내가 처음 프라하에 갈 때, 염두에 두었을 정도로 오랫동안 뇌리에 박혀 있었다. 그리고 프라하에 다녀온 다음에는 ‘우회, 불멸을 향하여’라는 동유럽 예술모지 기행글 속에서 다루기도 했다.

‘이방인’에서의 체코슬로바키아 이야기는 우연히 이웃 친구의 보복 사건에 휘말려 태양이 내리쬐는 바닷가에서 아랍인 청년을 총으로 쏜 주인공 사내 피르소가 재판을 기다리며 감방에서 보내던 중 침대 밑에서 발견한 옛 신문의 잡보 기사 내용이다.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분량인데, 기쁘게 꾸민 ‘장난’이 붙어있을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온 기막힌 사연을 담고 있다.

체코의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돈벌이를 위해 타지로 떠났다. 그는 25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다. 어머니는 동네에서 누이와 여관을 운영하고 있다. 떠났을 때에는 가난한 청년이었는데, 중년의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이고,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를 낳았다. 그리운 어머니와 누이를 만나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다가 그는 자신의 오랜 부채를 보상할 만한 빚을 놀라운 상봉 방법을 생각해냈다. 깜짝 선물을 안겨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유쾌한 장난을 꾸미는데, 아내와 아이를 다른 여관에 머물게 하고, 혼자 어머니와 누이 앞에 나타난다. 장난을 통해 극적인 상봉의 순간을 지연시켜서 행복의 충격을 배가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는 눈앞에 나타난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들은 장난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녀에게 보여준다. 깊은 밤 오직 손님의 돈에 눈독을 들인 모녀는 그를 죽여 돈을 훔치고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린다. 날이 밝자 그의 아내가 찾아오고, 진실은 밝혀진다. 어머니는 목을 매고, 누이는 우물 속에 투신한다.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려서 떠난 아들이 중년이 되어 돌아왔다. 그는 깜짝 충격의 행복을 준비하지 말았어야 했을까. 곧바로 어머니! 하고 불려야 했을까. 저어요! 하고 밝혀야 했을까. 25년 간 만나지 못한다면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일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채 무덤 같은 고향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돈이 필요했던 어머니와 누이의 시야가 흐려졌다 해도 그 정도일까. 이런 식의 질문은 ‘이방인’ 피르소가 늘 중얼거리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

카뮈는 ‘이방인’(1942)에 체코슬로바키아 이야기를 액자처럼 끼워 놓고, 피르소에게 천 번도 넘게 읽도록 한 끝에 ‘그것은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법도 한 이야기’로 결론짓는다. 그리고 이 어머니와 아들의 슬픈 이야기를 소설에서 독립시켜 ‘오해’(1943)라는 희곡 작품으로 발표하면서 ‘현대의 줄거리 속에 속명이라는 고대의 테마들을 새로이 옮겨보려고 시도한다.’(‘오해’, 서문) 그리고 피르소의 영원한 주제는 숙명 앞의 인간, 곧 운명의 장난으로 훼손된 명예를 복원하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여기에서 장난이란 ‘죄’와 동의어이다. 아들의 편에서 보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동시에 자신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 그리하여 상대 또는 세상이 잘못 받아들이고 판단하게 한 것이다. 어머니와 누이 편에서 보면, 가난과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님의 목숨과 돈을 훔쳐온 것, 급기야 아들도 오빠도 알아보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은 ‘때’라는 시간의 법칙과 양심이라는 정적의 정의, 양식이라는 윤리의 문제를 바탕에 깔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청년 시절 여행을 떠났던 프라하에서도, 조국 프랑스에서도 극심한 고독과 유배의 감정을 느꼈던 카뮈가 죽을 때까지 첨예하게 대면했던 주제이다.

체코슬로바키아 이야기를 품고 있는 ‘이방인’과 ‘오해’를 비롯 카뮈의 글을 읽을 때면, 태양, 바다, 꽃, 돌, 물, 모래(사막), 소금 등에 대한 묘사를 눈여겨보곤 한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주목하는 것이 어머니의 존재이다. 카뮈가 작품을 통해 구현했던 소설미학이나 철학은 태양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듯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의미에서, 체코슬로바키아 이야기는 카뮈가 평생 애트던 사랑과 연민, 부채 의식을 지고 살았던 어머니를 향한 원죄의 고백과 구원의 문제를 되새겨보게 한다.

카뮈의 ‘이방인’을 읽다 보면, 인상적인 에피소드 하나를 만나게 된다. 2부 2장에 나오는 ‘체코슬로바키아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는 십여 년 전 내가 처음 프라하에 갈 때, 염두에 두었을 정도로 오랫동안 뇌리에 박혀 있었다. 그리고 프라하에 다녀온 다음에는 ‘우회, 불멸을 향하여’라는 동유럽 예술모지 기행글 속에서 다루기도 했다.

체코의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돈벌이를 위해 타지로 떠났다. 그는 25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다. 어머니는 동네에서 누이와 여관을 운영하고 있다. 떠났을 때에는 가난한 청년이었는데, 중년의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이고,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를 낳았다. 그리운 어머니와 누이를 만나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다가 그는 자신의 오랜 부채를 보상할 만한 빚을 놀라운 상봉 방법을 생각해냈다. 깜짝 선물을 안겨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유쾌한 장난을 꾸미는데, 아내와 아이를 다른 여관에 머물게 하고, 혼자 어머니와 누이 앞에 나타난다. 장난을 통해 극적인 상봉의 순간을 지연시켜서 행복의 충격을 배가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는 눈앞에 나타난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들은 장난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녀에게 보여준다. 깊은 밤 오직 손님의 돈에 눈독을 들인 모녀는 그를 죽여 돈을 훔치고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린다. 날이 밝자 그의 아내가 찾아오고, 진실은 밝혀진다. 어머니는 목을 매고, 누이는 우물 속에 투신한다.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려서 떠난 아들이 중년이 되어 돌아왔다. 그는 깜짝 충격의 행복을 준비하지 말았어야 했을까. 곧바로 어머니! 하고 불려야 했을까. 저어요! 하고 밝혀야 했을까. 25년 간 만나지 못한다면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일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채 무덤 같은 고향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돈이 필요했던 어머니와 누이의 시야가 흐려졌다 해도 그 정도일까. 이런 식의 질문은 ‘이방인’ 피르소가 늘 중얼거리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

카뮈는 ‘이방인’(1942)에 체코슬로바키아 이야기를 액자처럼 끼워 놓고, 피르소에게 천 번도 넘게 읽도록 한 끝에 ‘그것은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법도 한 이야기’로 결론짓는다. 그리고 이 어머니와 아들의 슬픈 이야기를 소설에서 독립시켜 ‘오해’(1943)라는 희곡 작품으로 발표하면서 ‘현대의 줄거리 속에 속명이라는 고대의 테마들을 새로이 옮겨보려고 시도한다.’(‘오해’, 서문) 그리고 피르소의 영원한 주제는 숙명 앞의 인간, 곧 운명의 장난으로 훼손된 명예를 복원하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여기에서 장난이란 ‘죄’와 동의어이다. 아들의 편에서 보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동시에 자신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 그리하여 상대 또는 세상이 잘못 받아들이고 판단하게 한 것이다. 어머니와 누이 편에서 보면, 가난과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님의 목숨과 돈을 훔쳐온 것, 급기야 아들도 오빠도 알아보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은 ‘때’라는 시간의 법칙과 양심이라는 정적의 정의, 양식이라는 윤리의 문제를 바탕에 깔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청년 시절 여행을 떠났던 프라하에서도, 조국 프랑스에서도 극심한 고독과 유배의 감정을 느꼈던 카뮈가 죽을 때까지 첨예하게 대면했던 주제이다.

체코슬로바키아 이야기를 품고 있는 ‘이방인’과 ‘오해’를 비롯 카뮈의 글을 읽을 때면, 태양, 바다, 꽃, 돌, 물, 모래(사막), 소금 등에 대한 묘사를 눈여겨보곤 한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주목하는 것이 어머니의 존재이다. 카뮈가 작품을 통해 구현했던 소설미학이나 철학은 태양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듯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의미에서, 체코슬로바키아 이야기는 카뮈가 평생 애트던 사랑과 연민, 부채 의식을 지고 살았던 어머니를 향한 원죄의 고백과 구원의 문제를 되새겨보게 한다.

“국정원·검찰 등 최근 3년간

통신비밀자료 8천만건 조회”

정청래 의원 국감자료

지난 3년간 국가정보원 등 정부 수사기관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가 8225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26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국정원·검찰·경찰·군 수사기관 등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는 모두 8224만5445건이었다.

이는 하루평균 7만5000여건의 통신비밀자료가 요청된 셈이며, 3년간 총합 대비 인구 수(2015년 7월 기준 5144만명)로 계산하면 일인당 평균 1.6회 개인 통신정보가 조회된 꼴이다.

통신비밀자료에는 ▲통신제한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 요청 등이 포함된다. 이중 전화통화·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뜻하는 ‘통신제한’과 통화일시·시간·상대방 전화번호·발신지국·위치추적자료·인터넷 로그기록·접속 IP주소 등을 포함하는 ‘통신사실확인’의 경우는 범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반면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영장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입 및 해지일자·전화번호 등의 가입자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3년간 통신제한 요청이 1만7965건, 통신사실확인 요청이 5천180만5777건, 통신자료 요청이 3042만1703건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6일 광주를 방문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4·19 통일관에서 호남 4·19 혁명단체 총연합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역 패권주의 선거제도 혁파해 정치 틀 바꿔야”

정의화 국회의장 전남대서 명예박사 학위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지역 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혁파해 정치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이렇게 밝히고 “정치권 모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 개혁에 대해 정 의장은 “그동안 정치가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했다”며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정치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987년 개헌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30여년이 지나면서 많은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순한 사태를 만들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소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할 수 없어서,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현재 개혁 특위가 활동중이지만 여야 모두 내년 총선 승리에만 관심이 쏠려서 근원적인 정치 개혁에 나서지 않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는 통합의 DNA를 가진 국민으로 수천년 역사 속에서 국난이 닥칠 때마다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했다”며 “위기를 극복한 유전자를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국민대통합의 에너지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제 자랑스런 전남대 동문으로서 동서화합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서 전남대에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대는 영남 출신(경남 창원)의 정의장이 평소 탁월한 임법활동을 통해 지역화합과 통합의 정치 실현에 두드러진 발자취를 남긴 공로를 인정해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임재정 전 국회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장병완·권은희 의원, 박광태 전 광주시장 등 정치인과 졸업생,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으로 말초혈관 장애가 발생해 시력이 감소하는 눈의 합병증입니다. 당뇨환자는 정밀안저 검사를 통해 당뇨망막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방법
중증성 당뇨망막병증이 심해 안구 내 망막출혈이나 유리체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거나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소아과 / 내과 / 외과 / 백내장 / 녹내장 / 안과 / 눈안경 / 노인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